

이지혜, 이웃 유재석에 서운 "딸들 절친인데 '유퀴즈' 안 불러"

등록 2026.05.23 00:00:00



[서울=뉴시스] 이지혜. (사진 = 유튜브 캡처) 2026.05.23. photo@newsis.com *재판매 및 DB 금지

[서울=뉴시스] 이종희 기자 = 가수 이지혜가 이웃사촌인 유재석에게 서운한 감정을 드러냈다.

21일 유튜브 채널 '미지않은 관중언니'에는 '이지혜 VS 서인영 처음 밝히는 20년 전 이야기하다 평평 운 이유?'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.

영상에서 이지혜는 최근 서인영이 유튜브로 화제를 모으면서 tvN '유 퀴즈 온 더 블럭'에 출연한 것을 언급했다.

이지혜는 "나도 아직 '유퀴즈' 못 나가 봤다"라며 "내가 재석이 오빠 옆집 살고, 나은이랑 우리 딸 태리랑 그렇게 절친인데도 (안 부른다)"고 했다.

이지혜는 "재석 오빠가 공과 사를 진짜 잘 지킨다"라며 "그만큼 우리 인영이가 진짜 뜬 것"이라고 했다.

서인영은 "나 원래 안 떠는 성격인데 '유퀴즈'에서는 진짜 떨렸다"라며 "거기 나오시는 분들은 다들 너무 우아하고 예쁘고 배우신 분들 같던데, 솔직히 나는 배우이랑 좀 멀지 않냐"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.